

환절기 큰 일교차 감기환자 급증...코로나도 덩달아

기침·콧물 증세에 병원 '복직'...미세먼지 등 여파 비염 호소도 보건당국 "마스크 착용 필수...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야" 당부

최근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큰 날씨 이어지면서 기침·콧물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 등의 여파로 알레르기 비염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어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과 함께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16일(2024년 11주차)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 수(의사환자분율)는 1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인 2024년 10주차(3월3-9일) 12.8명보다 상승한 수치로, 그 전주인 9주

차(2월25-3월2일) 14.8명보다도 높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양성자도 ▲9주차 4천562명 ▲10주차 4천702명 ▲11주차 5천511명으로 집계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에서도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인 기침과 콧물, 고열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4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이비인후과에는 마스크를 쓴 20여명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께 진료가 시작됐어도 대기환

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는데, 이로 인해 접수처에서는 계속되는 문의 전화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직접 방문이 아니면 예약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이들 모두가 독감 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기침·콧물·고열·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기관지가 예민한 일부 환자들은 벌써부터 미세먼지와 꽃가루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비염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모(78·여)씨는 "한 달 전부터 흐르

다 못해 세다시피 한 콧물이 좀처럼 멎질 않아 병원에 온 게 벌써 3번째"라며 "독감과 코로나19는 아니란데 왜 낫질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환자 이모(20대·여)씨는 "최근 오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얇은 옷을 입고 나갔다가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며 "환절기마다 일교차로 인한 감기에 걸리는데, 두껍게 입으면 덥고 얇게 입으면 추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환절기 감기 증세는 물론 코로나19와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가 중요하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한다. 광주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엔 일교차로 인한 감기 환자가 늘는 추세인데, 안전한 봄에도 황사나 미세먼지 등 기관지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잘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정은정기자

나주 폐차장 불...3천여만원 피해

나주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26일 나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7분께 나주시 봉황면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13분께 완진됐다. 불이 났을 당시 폐차장에 있었던 직원 등 관계자들이 자력으로 대피한 덕에 사상자는 없었지만, 300㎡ 규모의 폐차장 창고 한 동이 전소됐고 차량과 부품 등이 타 소방 추산 3천4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나주=정준환기자



26일 오전 나주 봉황면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날 소방 당국은 진화 차량 17대와 소방관 43명을 투입,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나주소방서 제공>

3·1절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 경찰관 해임

3·1절에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낸 뒤 다른 조치 없이 도망간 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A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급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 경위는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인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다. 조사에서 A 경위는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의 이 같은 행실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중징계를 내렸다. A 경위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성학기자

'분담금 갈등' 광주 재개발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던 광주지역 재개발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장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께 장흥군 관산읍 인근에서 A(4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에는 A씨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기지국 위치 조회 등을 통해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찾은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광주북구한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자 현 조합장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당 조합은 미분양 및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추가 분담금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었다. /장흥=노홍록기자

“민간업체 복지포인트도 비과세 대상”

광주고법, 1심 '과세' 판결 뒤집어...‘공무원과 동일’ 전국 첫 사례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도 공무원처럼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사한 소송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민간기업의 손을 들어 준 첫 사례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 행정부는 지난 1월 민간기업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여수세무서는 A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

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기업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나온 이 판단은 여수세무서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한편 공기업 중에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 2심에서 복지포인트 과세 부당성을 최초로 인정받았으나 아직 상고심을 밟고 있다. /안재영기자

'금품수수 의혹'...광주과학관 직원 3명 직위해제

국립광주과학관 직원 3명이 금품 수수 등 부당업무 의혹으로 두 달여간 감사를 받고 있다. 26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지난 달 과학관 소속 A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이달 초 직원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조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사실관계 확인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세 사람은 직무 배제 상태로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등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광주과학관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관리부 차원에서 과기부 감사 결과 비위 정도에 따라 그

에 맞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도로위 '포트홀'...출근길 정체
광주 서구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포트홀이 발생, 1t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서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다. 26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차의 바퀴가 지름 60cm·깊이 50mm 규모의 포트홀에 빠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통 통제가 이뤄지면서 약 1시간 동안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주성학기자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Petco cav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디움 상가 2층

DJI HDKorea

HD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일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빌드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